

# 남양주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시. 동북쪽은 가평군, 동쪽은 북한강을 끼고 양평군, 서북쪽은 의정부시, 서쪽은 서울특별시, 남쪽은 구리시·하남시·광주시, 북쪽은 포천시와 접한다. 면적은 458.54㎢, 인구는 55만1,395명(2010년 8월 현재)이다.

## :: 수종사(水鐘寺) 창건 설화

### 세조임금이 들은 종소리

수종사는 한강변 운길산 중턱에 자리를 잡아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아주 빼어난 사찰이며 조선조 세조 임금과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세조의 행렬이 도착한 것은 해거름 때였다. 오대산을 다녀오는 임금의 행차가 한양 대궐까지의 백리 길을 앞두고 하루 저녁 묵어갈 행궁을 마련한 곳은 양수리였다. 세조는 전국 명산대찰을 즐겨 찾았다. 조선조 치국(治國)의 이념이 유가(儒家)의 가르침이었을지라도 세조는 큰 절을 찾아 경치를 즐기고 부처에게 예를 올리기를 즐겼다.

임금의 행렬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으되 위엄이 당당했고 행궁 주위

세조가 산병치료를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올 때 밤이 되어 양수리에서 물 위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운길산 이디선이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와 다음 날 숲속을 조사해보니 천년고찰의 폐허 바위벽에는 18나한상이 즐비해 있었고 그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세조는 매우 감동하여 지금의 자리에 절을 복원하게 하고 절 이름을 수종사라 부르도록 하였다. 초의, 다산, 후사의 걸음은 운길산(雲吉山, 610m) 수종사(水鐘寺)에 멈추었다. 세조의 불심을 재촉케 하고 사가정으로 하여금 '현허제일의 명당' 이라 부르게 한 경기 조안의 땅 수종사는 금강산·설악산·오대산에서 비롯한 북한강과 치악산·속리산·태백산에서 비롯한 남한강을 합수케 하여 물안개 가득 수종사의 다수를 범무와 함께 걸어 올린다.



『수종사는 천년의 창기를 품고 아름다운 종소리들 온 누리에 울리며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다.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고사인데 절에는 샘에 있어 돌 틈으로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

- 유수종사기 (다산 정약용) - 』

정약용 유수종사기(游水鐘寺記)

에서는 찬바람이 이는 듯했다. 세조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곳으로 모여드는 이곳의 아름다운 붉은 노을과 강가 풍경을 조망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임금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에 청아한 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좋은 종소리로다. 이 근처에 큰 절이 있음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대신들은 절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꼬...”

임금은 종소리가 강 건너 산 중허리에서 들려온다는 걸 알았고 그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하며 잠이 들었다.

“이 근처에 큰 절이 있는 듯한데 어떤 절이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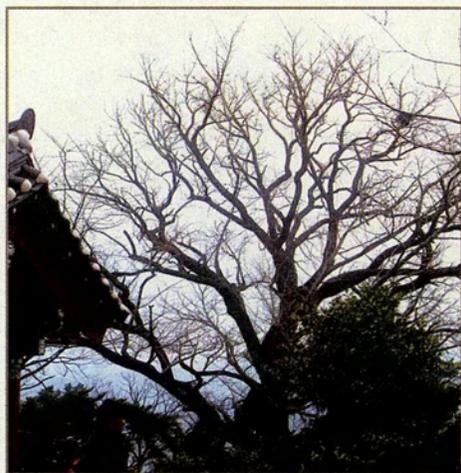
신하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하, 이곳 인근에 종소리가 들릴만한 절은 없사옵고 지난밤에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나이다.”

“내가 헛것을 들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는 분명 부처님이 어떤 계시를 내리심이로다.”

여기에게까지 생각이 다다른 임금은 바로 신하들에게 강 건너 산을 조사하도록 했다.

한 나절 만에 돌아 온 군사들과 대신들은 기다리고 있던 왕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그 산은 운길산이고 산 정상 가까이에서 그리 깊지 않은 암굴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암굴 앞은 절터의 흔적이 완연하나



수종사 은행나무

폐허가 되어 이렇다 할 유물이 없는데 다만 암굴에 열여덟 분의 나한님들이 가지런히 조성되어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하들이 군사를 데리고 암굴 앞에 이르니 18나한상 앞쪽의 암굴 천정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큰절에서 듣는 아름다운 범종소리와 흡사하다는 보고였다.

“바로 그곳이다. 그 소리가 내 귀에만 들렸음이니 분명 나한님들의 조화라 할 것이다. 내 그곳에 참배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길을 잡도록 하라.”

암굴에 도착한 세조는 나한들을 보고 경탄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신묘한 조화로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그 신력에 감복하며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참배를 마치고 암굴 앞에 서서 산 아래를 둘러본 임금은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앞에 펼쳐진 정경이 가히 조선제일의 풍광이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저 아래의 양수리는 조물주가 그려놓은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이 절터이나 지난날 절이 피폐하여 나한님들이 당(堂)을 잃고 암굴에 드신 것이 안타깝도다. 아마 짐의 귀에 들린 종소리는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나한님들의 계시가 분명하다. 팔도방백들은 속히 의논하여 이곳에 절을 지으라. 그리고 절 이름은 물방울 소리가 종소리로 울려 퍼진 뜻을 새겨 수종사(水鍾寺)라 함이 좋은 듯하다. 절 이름에는 나한님의 신묘한神通력이 담겼음을 알고 속히 불사를 진행하도록 하라.”

세조는 한나절을 암굴 앞에 서서 산세와 양수리의 풍광을 즐기다가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고 궁궐로 돌아갔다고 한다.

## ∴ 진건면 정작(奠措)의 설화

### 원수 갚으려고 구렁이가 아이로 변신해

진건면 꽤나리(掛羅里)에 살았던 정작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설화이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재주와 술법이 있어 세칭 이인(異人)이라 불리던 정작이 하루는 형 북창(北窓)을 따라 시골을 가는 데 어느 마을의 한 집을 바라보더니, “야! 저 집이 딱하구나”하고 탄식을 하였다. 북창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소리냐. 잠자코 그냥 지나는 것이 좋다”하니 정작이 “벌써 발설을 하였는데 남의 재앙을 알고 구해주지 않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북창이 다시 “그래, 네 말이 옳다. 나 먼저 갈 테니 네가 가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정작이 그 집에 들어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고 허기가 저 하루밤 쉬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니 주인이 기꺼이 허락하였다.

밤중에 주인에게 말하기를 “아까 지나다보니 댁에 말 못할 화가 곧 닥치는데 이 화를 막아주려고 들어왔소”라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화를 피하고 길한 일이 생길 터이니 어찌하겠소?” 주인이 깜짝 놀라며 정말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백탄 열 섬과 큰 궤짝 하나를 준비하라” 하였고 주인이 그대로 시행하여 백탄 열 섬을 마당 가운데 쌓아 놓고 관솔로 불을 붙이니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을 하였다. 이 가운데 6, 7살 먹은 주인 아들도 나와 불구경을 하였는데 정작이 아들을 잡아 궤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주인과 마을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작은 태연하게 그 궤짝을 불더미 속에 집어던졌다. 모든 사람이 발을 구르며 “저런 미친놈이 남의 옥동자를 죽인다”고 야

단들이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잠시 후 불 속에서 꺾적이 터지면서 별안간 비린내가 진동하더니 큰 구렁이가 타죽은 모습이 보였다. 정작이 하인을 시켜 불을 끄고 숯을 치우고 보니 부러진 낫 조각이 나왔다. 주인에게 보이며 “이 낫 조각을 알겠소?”라고 하니 주인이 가만히 이를 살피더니 “알겠소. 내가 수년 전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는데 고기가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 큰 구렁이가 있었소. 그래서 큰 낫을 나무 막대기에 매어 휘둘렀더니 구렁이가 용을 쓰다가 낫에 찢려 죽었소. 그때 낫도 부러졌소”라고 하였다. 주인은 하인을 불러 광 속에서 끝이 부러진 낫을 가져다 대어보니 꼭 들어맞아 모두들 놀라워했다. 정작은 “아들은 뱀의 정기(精氣)로 원수를 갚으려 태어난 것인데 며칠만 더 지났으면 집안을 완전히 망쳤을 것”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악독한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마 그대로 지날 수 없어 행한 일”이라며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였다. 주인은 매우 기뻐하며 거듭 고마워했다.

